

삼성전자, 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솔루션 '매직넷(MagicNet)'을 탑재한 대형 LCD 모니터 2종을 선보이고 기업 및 공공장소 등 상업용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싱크마스터 460Pn(46인치), 싱크마스터 400Pn(40인치)로 처음 선보인 매직넷 기능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모니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다.

이로써 PC 1대에 저장된 다양한 문서와 이미지·동영상 등을, 수십 대의 모니터에 시간대에 따라 각기 다른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는 다수의 모니터에 각기 다른 화면을

보내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수(數)만큼의 PC가 필요했다.

특히, 「싱크마스터 460Pn」, 「싱크마스터 400Pn」에는 원도우CE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컴퓨팅 기능이 있어 랜(LAN)으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하면, 모니터 만으로도 웹 서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USB 포트가 있어 메모리 저장장치를 USB로 연결하면 PC가 없어도 연결된 저장장치에 저장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은 물론 엑셀·워드·PDF 등 문서 파일도 보여 줄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관련 보안 장치도 마련 되어 있다.

LG전자 PDP TV, 중남미 허브공항 점령

LG전자가 중남미의 교두보 멕시코 국제공항에 PDP TV를 대거 설치하는 등 공격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멕시코시티 국제공항내 에어프랑스(Air France), 델타(Delta), 아메리칸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등 36개 국제 항공사의 티켓 카운터 전면에 운항정보 디스플레이용으로 42인치 PDP TV 250여 대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PDP TV는 제품뿐 아니라 LG브랜드를 별도로 표시해 브랜드 광고효과를 높이고, 각종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연간 5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남미 최대공항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며 중남미 비즈니스 및 관광을 위한 교두보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PDP TV 설치는 국제적으로 정치, 예술, 문화 교류의 중심인 멕시코 국제공항에 LG전자의 첨단 기술을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 멕시코 PDP T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2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달성, 1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LG전자는 최근 품질과 서비스면에서 호평을 받아 상파울루 꽁고냐스(Congonhas)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무의탁 노인 훈자위한 깜짝 생일파티	2005.07.07
2	삼성 애니콜, 상반기 다양한 진기록 수립	2005.07.06
3	文化마케팅으로 러시아서 국민브랜드 名聲...	2005.07.06
4	삼성전자, 두얼 코어 슬림PC 국내 첫 출시	2005.07.05
5	삼성전자, 세계최초 700만화소폰 출시	2005.07.04
6	삼성전자 '동요 사랑' 20년 대축제	2005.07.04
7	삼성전자-아우디, 명품휴대폰과 명차의 만남	2005.07.02
8	삼성전자, 新개념 데이터전송방식 원칩 DDI...	2005.07.01
9	삼성전자,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 확대	2005.07.01
10	삼성전자, 차차세대 통신장비시장 국내 기업...	2005.06.30
11	삼성전자, 친환경 외장형 DVD 기록기기 출시	2005.06.29
12	삼성전자, 카메라폰용 500만화소 CIS 개발	2005.06.28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분야, 프리미엄 브랜드...	2005.07.05
2	LG전자, 크리켓 마케팅효과 '대박'	2005.07.04
3	LG전자, 독일월드컵 겨냥 발빠른 축구 마케팅 전개	2005.07.01
4	LG전자, Motion 인식 센서 탑재 '3D 리얼 게임폰'..	2005.06.28
5	ELE.PT COMM CHINA 2005 참가	2005.06.24
6	LG전자, "중국 규격인증도 이제 국내에서"	2005.06.24
7	LG전자 임원, 주말마다 사랑의 집짓기 '구슬땀'	2005.06.24
8	LG전자, SEK2005서 첨단 기술력 선보여	2005.06.23
9	LG전자, 그리스 참전용사 방문 후원	2005.06.23
10	LG전자, '휴대폰 자문 마우스' 기술 개발	2005.06.23
11	LG전자, 광파오븐 '슬라倜' 인기폭발	2005.06.23
12	LG전자,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	2005.06.23

공항을 비롯,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브라질리아 (Brasilia), 살바도르(Salvador), 큐리티바(Curitiba) 등 브라질 주요 6개 도시 국제 공항에 PDP TV 200여 대를 공급한 바 있다.

현재 LG전자는 멕시코 시장에서 PDP TV, LCD TV, DVD 레코더, LCD 모니터, 헤드폰, 광스토리지, CDMA 휴대폰, 가정용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9개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석권, 지난해 약 6억불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매출 8억불을 바라보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국내최초 글로벌 인사 시스템 실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국내, 해외로 나눠져 있는 인사노무체계를 본사 통합 운영체계로 바꾸는 '글로벌 인사 시스템 (Global HR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사적자원관리(ERP) 기반의 인적자원관리(HRM)시스템이 기업체별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현재 해외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인사관리 체제를 통합하여 전세계 44개 사업장의 총 5000 여명의 해외 현지 인력을 관리하는 '글로벌 인사 시스템 (Global HR System)'을 운영, 2010년 'Global Top 10' 진입을 목표로 해외 인적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세계 임직원의 인적, 경력, 기술 사항등 인사정보 통합관리, 지역별/ 기능별 통계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및 핵심인재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글로벌 인사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글로벌 인사 시스템' 운영의 특징은 전 인사부서와 전세계 임직원들간에 쌍방향 채널을 구축하여 선진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새로운 시스템 적용으로

▲ 해외 인력 활용 증대 ▲ 해외 네트워크 기능 강화 ▲ 조직 소속감 증대 등 노무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직무 및 역량, 성과 중심으로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보컴퓨터 하반기 비전 선포

삼보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출시가 지연됐던 에버라텍 신제품을 이달초 본격 출시, 노트북 시장판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에버라텍 제품군으로 국내 노트북 시장에 에버라텍 돌풍을 몰고 온 삼보는 하반기 노트북 시장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칼라 노트북 '에버라텍 4200'과 '에버라텍 1000'을 통해 노트북 시장 2위 자리를 되찾을 계획이다.

삼보가 내놓은 에버라텍 신제품은 발표시기부터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등 디자인,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매출 확대를 위한 혜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국 600여개의 대리점과 100여개의 서비스 센터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삼보는 영업 조직을 대폭 개편, 소비자 시장과 공공 용 시장에 최적화된 유통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 대리점 연합회는 전국 대리점 경영자 대표가 모여 차별화된 서비스와 유통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발표했으며 삼보의 AS를 전담하는 유베이스도 고객만족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보는 지난달 말 국내 사업 본격 공략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해외 사업의 인력을 국내 마케팅, 영업 조직으로 흡수 및 재배치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 부문 강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 팀을 확대 개편 하는 등 국내 시장공략에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다소 침체됐던 회사 분위기가 법정관리 개시로 '다시 일어서는' 분위기로 살아나고 있다"며 "해외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법정관리라는 대안을 택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에 초점을 둘 올해로 25년을 맞는 삼보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 세계 최소형 카메라모듈 개발

삼성전기는 6X6X4.5mm의 크기에 30만화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계 최소형 카메라모듈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출시중인 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의 크기는 대체로 7.8 X 7.8 X 6.5 mm 정도이며, 개발된 제품 중 최소형은 7X7X4.5 mm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개발된 제품보다 가로와 세로를 각 1mm씩, 전체 체적 기준 30% 가량 줄인 세계 최소형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카메라모듈은 화소와 기능은 점차 늘어나고, 제품의 크기는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정된 크기의 휴대폰에 DMB, MP3, 3D 게임 등 늘어나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부품이 보다 작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CMOS 이미지 센서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세계 최소형 카메라 카메라모듈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모듈에 사용되는 기판과 CMOS센서를 장착하는 방식을 기존과 차별화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카메라모듈은 CMOS 이미지센서의 신호를 와이어(Wire)를 통해 인쇄회로기판에 연결, 와이어 만큼의 공간이 필요했다. 삼성전기는 이미지 센서를 다중 회로선이 형성된 세라믹 기판에 별도의 와이어(Wire)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플립칩(Flip chip)방식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플립칩 본딩(bonding)에 대한 특허”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이번 개발에 적용한 플립칩 방식이 제작 공정상의 난이도가 높은데다, 특허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경쟁업체들이 단기간에 따라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이번에 개발한 초소형 30만 화소 초소형 카메라모듈을 세계 유수의 휴대폰 업체와 샘플테스트 중이며, 승인 작업 등을 거친 금년 하반기 중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국내 최대 종합부품 업체로 카메라모듈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등 사내 공조가 원활해 휴대폰 생산업체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소니 코리아 ‘제 1회 Sony Dream Kids Day’ 개최

소니 코리아는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총무아트홀 소극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 예술 체험 행사 ‘제 1회 Sony Dream Kids Day(이하 ‘소니 드림 키즈 데이’)’를 개최하였다.

‘소니 드림 키즈 데이’는 소니 코리아가



그동안 ‘Arts For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캠페인을 펼쳐온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손을 잡고 국내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였다.

소니 코리아는 이번 ‘소니 드림 키즈 데이’ 행사를 위해 저소득층 보호 인가 시설에 있는 어린이 약 350명을 초청하고 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재즈동요, 가족뮤지컬 공연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2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사 <1부>는 소프라노 김원정씨가 재즈로 편곡한 동요를 들려주는 「낮에 나온 반달」과 소니 BMG 소속 가수 서영은씨의 특별 공연으로 꾸며졌고 <2부>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환타지 오즈의 마법사』가 펼쳐졌다. 또한 <3부>에는 문화를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플레이스테이션 2 체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뮤지컬의 경우는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적 요소가 총망라되어 있다”며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광전자, FAB 3라인 기공식 거행



지난 6월 23일, 광전자(대표 이택렬 <http://www.auk.co.kr>)는 팝 3라인을 신축하기 위한 기공식을 거행했다. 광전자는 300억원을 투자, 전북 익산 제 2공장 내에 전력관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6인치 팝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속산화막반도체 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 FET) 기준 월 2만장의 웨이퍼 가공 능력을 추가 확보하여 월 2700만개의 파워 MOS FET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 3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시설투자는 파워 MO SFET의 판매 계획이 늘어남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전력 관리 제품 사업 확대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레전자·스카이라이프 공동브랜드 HDTV 출시

이레전자와

SkyLife-이레 HDTV 공동브랜드
다채널 디
지털위성방
송 스카이
라이프 가



공동 브랜드로 HDTV를 만들었다.

두 회사는 6월 29일 ‘스카이라이프-이레 HDTV’ 제품 발표회에서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정을 체결, HDTV 정식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시한 ‘스카이라이프-이레 HDTV’는 국내 첫 방송사 브랜드TV로 이레전자의 42인치, 32인치 디지털TV에 스카이라이프의 셋톱박스와 방송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다.

두 회사는 최근 국내 디지털TV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고가로 느껴지고 있고 HDTV의 고화질

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협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착순 2006명을 체험단으로 선정, 이레전자에서 제조한 최신형 PDP HDTV 42인치 혹은 LCD HDTV 32인치에 스카이HD 셋톱박스, 스카이파밀리 패키지 상품을 시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삼성코닝, 초등학교 환경체험학습 실시

삼성코닝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구미시청과 연계해 초등학생 환경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체험학습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폐수처리장을 통해 어떻게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체험학습은 총 3,112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삼성코닝 관계자는 말했다. 올해는 구미시 5개 초등학교 511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지난 5월 24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학생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물이 걸러지는 원리를 배운 후에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습 내용은 수소이온 농도 측정, 폐수 정화 실험 등 학교에서만 배우던 과학실험을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뤄진다.

또한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환경보호 교육도 받는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마인드 고취와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체험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한국단자공업, 2005년 6시그마 활동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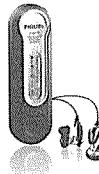
본사는 6시그마 혁신활동의 가속화를 위하여 2005년 프로젝트 활동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에 본사는 Black Belt 인증자 6명, 미인증자 15명이 총 21개의 테마를 가지고 한국단자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 15명의 추가 Black Belt 가 인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양성하기 시작한 Green Belt 대상자 중 미인증자들과 금번 신규 양성되는 3기 GB를 대상으로 BB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인증을 확대하여 6시그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전자, 국내 최경량 MP3 플레이어 '키 링' 시리즈 출시

필립스전자는 '입는 가전'의 초기 단계로 개발한 '키 링(Key Ring)' 시리즈를 더욱 발전시켜 휴대성을 극대화한 국내 최경량 '키 링 MP3 플레이어'를 새롭게 출시하고 판매에 나선다. 또한 제품 출시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및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Key014와 Key016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내장형 배터리를 포함해도 무게가 31g에 불과한 국내 최경량 MP3 플레이어이다. 두 모델 모두 필립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목걸이형 통합 리모콘이 장착되어 있어 움직이는 버스나 지하철 안, 혹은 경기장과 같은 혼잡스러운 곳에서 목걸이를 통해 간편하게 볼륨조절과 음악 선택도 할 수 있다.

Key014는 MP3는 4시간, WMA는 8시간 재생할 수 있는 256MB 메모리를, Key016은 MP3와 WMA를 각각 8시간, 16시간 재생할 수 있는 512MB 메모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케이블, 드라이버 혹은 여타 부가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내장된 리튬 드리머 배터리와 USB 단자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PC의 외장 드라이브로서 중요한 파일의 백업이나 개인적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USB단자를 PC에 꽂기만 하면 충전이 가능하며, 외부 배터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시에도 배터리 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장 배터리는 6시간, 보조 배터리는 7시간 사용할 수 있다.

필립스전자는 '키 링'의 주요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MP3 전문 웹사이트인 MP 메이트(www.mpmate.com)를 비롯해, 다음, 삼성물, 인터파크, LG이숍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필립스의 휴 시네마, 포터블 오디오 등 다양한 제품들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사은품으로 목걸이형 리모콘 외에 5키 리모콘도 증정할 계획이다. MP 메이트 사이트에 사용후기를 게재한 고객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